

지역 엔젤투자허브, 경남에 조성

-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엔젤투자허브, 경남에 조성
- 3번째 지역 엔젤투자허브로, 2개소(충청권·호남권) 기(既) 운영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경남에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비수도권 2개 광역권(충청권, 호남권)*에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세 번째로 조성된 허브이다.

* 위치 : 충청권(대전TIPS타운), 호남권(광주AI스타트업 캠프)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지역 엔젤투자허브 신규 구축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경남은 지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조선,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 중견기업 연계 등을 통한 활발한 상담(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남에 조성될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전반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3개 엔젤투자허브와 협력해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720)
		담당자	사무관	임선아 (044-204-7724)
		담당자	주무관	임미현 (044-204-772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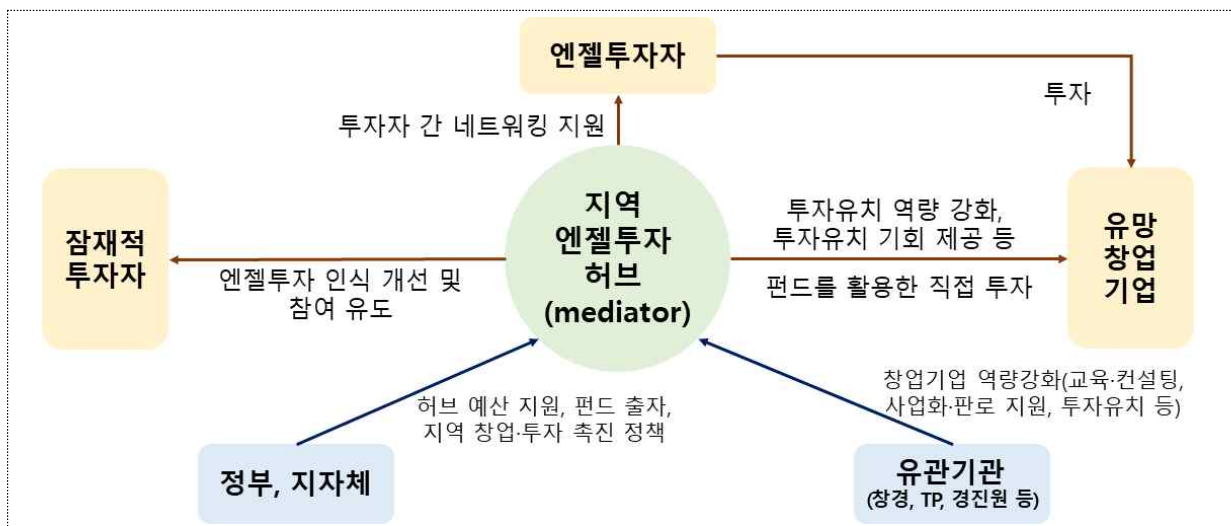
지역 엔젤투자허브 개요

- (사업목적)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 및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권역별 엔젤투자허브 구축·운영

- 허브를 매개체로,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엔젤투자 생태계의 자생적 형성 지원

* '21년 충청권·호남권에 엔젤투자허브 旣 구축, '23년 1개소(동남권) 추가 구축

< 지역 엔젤투자허브 추진체계 >



- (지원내용)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중추로 하여 지역기업을 위한 창업 -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① (지역투자 활성화 거점) 협의회*를 구축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엔젤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및 기관별 역량 연계

* 지역 창업·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투자자·전문가)-공공(지자체, 창경 등) 협업

** (충청) 기술력 기반 딥테크 창업 활발 / (호남) 지역 자원 활용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

- ② (네트워크 구축) 지역 리더 대상 엔젤투자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 투자자를 발굴하고, 창업기업-투자자 네트워크 기회(IR, 포럼 등) 제공

- ③ (창업기업 발굴·육성) 창경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펀드를 활용한 직접 투자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지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피드백, 투자유치 실무교육, 모의 IR 등